



고창군 발명진흥회, 중소기업 지식재산 강화 협약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한국발명진흥회(상근부회장 손용욱)가 3일 고창군청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심덕섭 고창군수, 한국발명진흥회 이희희 본부장, 고창군·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데 기업 성장의 징검다리 가 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특허기술 컨설팅, 특허기술이전 등 IP 사업화 관련 업무 협력 △상호 지원사업의 홍보역량을 통한 우수 지원 대상 기업 발굴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화 지원 및 관련 정보공유 등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협의회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은 3일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주체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고창 학부모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창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협의회는 원활한 소통과 운영을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 하반기 추진사업 설명 및 효율적인 학교교육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에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협의회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환경 구축의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군 곳곳, 취약계층 선풍기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이하 무주양수발전소)와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 무주군지부(이하 무주군 공무원노조)가 함께 무주군 관내 취약계층 21세대에 선풍기 각 1대씩 총 21대를 지원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선풍기 지원은 한 여름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무주양수발전소에서 선풍기(105만 원 상당)를 기증하고 공무원노조 무주군지부에서 각 가정 배달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얻어 발굴했다. 무주양수발전소 조수남 소장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이 특히 걱정"이라고 전했다. 무주군공무원노조 박길준 지부장은 "행복 공직자를 대표해 지역 내 취약계층 긴급지원 활동에 노력 봉사할 수 있어 보람있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만경읍,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이어져

김제시 민경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조성영)는 최근 발생한 집중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만경읍 행정복지센터에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어 "수해를 당한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차희의 운영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동마을 이장(백종래)은 만경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1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사현의체 활동 및 관내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창환 만경읍장은 "모두가 힘든 가운데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후원된 성금을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따뜻한 만경읍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유리동물원' 작품상·연출상 수상

호원대 공연미디어학부,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 2관왕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학생들은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 대학극전에서 '유리동물원'으로 작품상과 연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축제는 '연극,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1~29일 밀양 아리나에서 개최됐다. 총 9일 간 진행된 축제에 전국 57개 팀이 88개 공연과 행사를 열었다. 이에 호원대학교의 '유리동물원'은 테네시 윌리엄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재탄생된 작품이다. 밀양공연예술축제 심사단은 총평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정신세계를 그려내기 위한 우리 자제의 무대장치와 오브제는 작품의 주제를 적절히 대변하고 상징했다"며 "조명과 음악의 활용도 연기자들의 감정 표현에 도움을 주었으며, 공간연출과 연기자들의 동선과 하모니도 연구적으로 잘 연출했다"고 평했다. 특히 '유리동물원'을 연출한 김유라(연기전공 4년)·김정원(기획연출전공 4년) 연출가는 "유리동물원'은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각자가 처한 좌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직면한 현실과의 조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다"며 "이해와 사랑을 다루는 작품인 만큼



서로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인내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단단하게 버텨왔던 때 준 두 지도교수님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임해준 배우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공연미디어학부장인 김성태 교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연극계에서 매년 우수한 실적을 보여 준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수상이 예술가로서의 출발점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은성기자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공로패 수상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장이 3일 고창군 대신면 농업인단체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대신면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역 농업의 핵심 조직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3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이날 임정호 의장의 대신면 농업인단체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회원들의 뜻을 모아 공로패를 수여하게 된 것이다. 제9대 고창군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임정호 의장은 오랫동안 농업에 몸담아오면서 누구보다 농업과 농촌 현실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농업박사'로 불리우고 있다. 임정호 의장은 고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멜론·수박 등 특화작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한 비가림 하우스의 확대 △농촌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확대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및 보조사업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전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전달

전주시는 정원주 (주)대우건설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최고액인 500만원을 전주시에 쾌척했다고 3일 밝혔다. (주)대우건설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국내 주요 건설사로, 토목·플랜트·주택·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주 회장은 "좋은 기회로 전주시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주택건설협 전북회, 시에 주거환경개선 기부금 3000만원 전달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박종완)는 3일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에 써달라며 전주시에 기부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해 박종완 전라북도회장(계성건설 회장), 최산성 이사(에버종합건설 대표), 유승국 감사(유피플랜트 대표) 등이 함께했다. 시에 전달된 기부금 3천만 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국가공공자 주거여건개선과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다. 박종완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시민을 위해 흔쾌히, 나눔을 실천해준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들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2일 유등면 주민복지센터에서 순창군 노인회 5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주미경 팀장이 교육 강사로 나서 날로 늘고 있는 보이피싱 피해규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요 유형 및 사례, 신종사기수법 사례, 투자사기 주의, 피해예방 5계명, 보이피싱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을 전파했다. 이병희 지부장은 "자녀 및 검정할 사칭, 개인정보탈취 등 수법 등이 점점 다양하고 지능화되어 피해 규모액도 커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농협의 주 고객인 농촌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보이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농협에서는 해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이백면, 찾아가는 폐의약품 수거 실시

남원시 이백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안동준)는 8월부터 면민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면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폐의약품 수거, 이백약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의약품을 가정 내 방치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으며, 생활쓰레기에 섞여 토양에 묻히거나 번기나 하수구 등을 통해 버려질 경우 하천 및 토양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이백면은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홍보물로 제작, 경로당 등에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1일 1가구 가구방문 시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품을 확인 후 폐의약품은 대신 수거해 분리배출 할 예정이다. 안동준 면장은 "찾아가는 보건 복지사업을 통해 면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는 맞춤형복지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익산시의회, 수해복구 활동 동참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3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용안면 석동리 일원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최종오 의장 한동원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은 용안면 석동리에 있는 수박 재배 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 안의 농산물과 토사물을 걷어내고 토양을 덮고 있던 비닐을 수거하는 등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최종오 의장은 "이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면서 "익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힘쓰며 나아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피엘디앤씨, 군산시 수해 지원금 1000만원 기탁

군산시는 3일 (주)피엘디앤씨(대표 박종민)가 호우피해 지원 성금으로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피엘디앤씨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분양 대형 및 부동산 종합건설사 등 관련 기업으로 개성동 진아리채(가정)시행사로 참여해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박종민 대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군산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라며 "군산시 주민들이 호우피해를 하루빨리 복구해 다시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민을 위해 기탁을 해준 피엘디앤씨 박종민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분들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교대, 아이스크림 나눔 행사

3일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에서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에 따르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는 여름의 무더위와 화염으로 지친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노고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더운 날씨에 지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박병춘 총장은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전주=김기우 기자